

# 1호선 청량리~망우역 연결 어려워... “사업성 낮다”

서울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B/C 0.38... 100원 투자시 38원 효과  
4가지 방안 모두 경제적 타당성 없어

서울시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을 망우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 청량리~망우간 직결 운영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0.25~0.38로 나타났다. 100원을 투자하면 최대 38원의 효과를 본다는 뜻이다. 통상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해 4~12월 청량리역을 망우역까지 잇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시가 노선 연장을 검토한 지역은 동대문구 청



량리역에서 중랑구 망우역까지 4.5km 구간이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서울 동북부지역의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 지역 개선 ▲도심 접근성 향상 및 민원 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총 4가지 방안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했다. 시나리오 1안은 중앙선 하부를 통과하는 신설 노선으로 망우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회기역, 중랑역, 망

우역 3개소를 신설한다. 시나리오 2안은 GTX-B노선을 이용해 망우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중랑역을 추가하고 GTX 망우역을 개량한다. 각 시나리오는 건설방법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조사 결과 모든 대안에서 B/C가 1이하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나리오별 비용 대비 편익을 보면 1안은 0.33~0.38로, 2안은 0.25~0.33으로 나왔다. 지하 노선을 신설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GTX-B노선을 활용하는 시나리오 2에 비해 사업비는 높게 산정됐지만 교통수요에 따른 편익이 커 B/C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량리~망우역 연결로 혜택을 보는 승객 수(일평균 기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청량리~회기역으로 직 환승하는 1033명, 1·3·4·6호선을 이용해 경의중앙선(중랑, 상봉, 망우)으로 환승하는 6777명 등 하루 평균 총 7810

명으로 집계됐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는 “사업 시행 시 환승거리 감소로 인한 대중 교통 서비스 개선은 기대할 수 있으나 배차간격이 20분으로 나타나 환승시간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본 과업에서 검토한 모든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GTX-B노선의 중복으로 인해 철도 수요가 분산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업 추진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기민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이유는 청량리역에서 경춘선 방향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향후 GTX-B가 생기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비 오면 택시를”... 통합교통 추천서비스 구현

지하철·택시·따릉이·나눔카 등  
각종 교통수단 아우르는 서비스

#. 신입사원 나이제(가명) 씨는 통합이동서비스 앱으로 회사까지 도착 예정시간을 확인하고 집을 나섰다. 출발시간을 인식해 자동으로 예약된 따릉이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갔다. 예정대로 급행열차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다. 지하철에서 내려 따릉이로 회사까지 가려고 했는데, 앱에서 비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며 따릉이 대신 택시를 추천해줬다. 지하철에서 내려 앱이 안내한 출구로 나왔더니 미리 호출해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래 서울형 통합이동서비스 예시. /서울시

철 땀 좌석에 여유가 있는 버스와 지하철이 결합된 서비스 등 개인 상황과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이 필요한 통합 이동서비스를 직접 제안·개발하는 ‘서울형 통합이동서비스 해커톤’ 대회를 연다. 9일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해 사전교육과 멘토링, 예선대회 등을 거쳐 7월 20~21일 본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통정보에 관심 있는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면 누구나 2~5명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형통합이동서비스 해커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통합이동서비스는 교통수단간의 경계를 허물어 단절 없는 이동이 가능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본인에게 최적화된 이동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새 시대를 열 것”이라며 “플랫폼 개방으로 교통서비스 업계가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해커톤 대회 등을 통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해 구현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하철·따릉이 정보를 포함,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서울 택시의 실시간 위치 정보, 고속·시외버스 실시간 배차 정보까지 제공한다.

통합이동서비스는 교통수단간 연계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과 택시가 결합된 서비스 ▲날씨가 맑은 날 주변 경치를 느낄 수 있도록 버스와 따릉이가 결합된 서비스 ▲몸이 아프거나 지

서울시는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택시, 따릉이, 나눔카, 퍼스널모빌리티, 고속·시외버스 등 각종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통합이동서비스를 구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교통수단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한다. 시는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을 구축, 9일부터 개방한다.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은 버스·지

## 오는 7월 여의도 제2핀테크랩 들어선다

입주기업에 지원 프로그램 무료

서울시는 오는 7월 여의도에 제2핀테크랩을 개관한다고 8일 밝혔다. 핀테크랩은 위워크 여의도역점에 들어선다.

제2핀테크랩 입주기업은 전 세계 위워크 공간과 함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과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다.

위워크는 전 세계 27개국, 100개 도시, 총 425개 지점을 갖고 있는 공유 오피스다. 인력관리, 투자유치방법, 비즈니스 브랜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인큐베이팅 전문 업체를 통해 제2핀테크랩 입주 기업에 인큐베이팅, 멘토링, 국내·외 금융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도 도울 예정이다.

시는 위워크와 계약해 여의도역점 6층을 임대, 입주 스타트업에 2년간 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7월 1차로 17개 기업을 선정해 입주를 지원한다. 향후 공간을 늘려 추가 입주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5월까지 제2핀테크랩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1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연매출 1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4명 이



위워크 여의도역점 내부 커뮤니티 공간. /서울시

상의 기업이다. 시는 고용인원, 투자유치 실적, 매출액 등을 심사해 우수 핀테크 기업의 입주를 지원한다. 전체 선발 기업의 30%는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핀테크 기업으로 선발한다. /김현정 기자



노랗게 물든 개나리 꽃길.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정정습지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 10만호 돌파

일 평균 660개 업체 신규 등록

서울시는 제로페이 가맹점이 10만호를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모집을 시작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하루 평균 660여개 점포가 새로 등록된 셈이다.

제로페이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매장 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결제하면 수수료가 0%다.

10만번째 제로페이 가맹점은 통인시장 근처의 ‘역사책방’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만호점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매장용 QR코드를 직접 배송하고 특별 제작한 ‘제로페이 10만호점’ 스티커를 매장에 부착했다. 역사책방에서 책을 구입한 후 직접 가져온 QR코드를 스마트폰을 찍어 역사책방의 첫 번째 제로페이 결제 고객이 됐다.

시는 9개 결제사와 할인, 포인트 적립, 사은품 추천, 기프트콘 증정 등 제로페이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를 펼친다. 세종문화회관, 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에서 열리는 기획



박원순 시장이 8일 오전 10만번째 제로페이가맹점인 ‘역사책방’에서 책을 구입한 후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있다. /서울시

공연(대관공연 제외)을 제로페이를 결제하면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대공원, 한강공원 시설 등에서도 제로페이 이용자를 위한 10~30%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18개 관련 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마케팅 이벤트에는 네이버,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정보통신 등 민간 결제 플랫폼 사업자와 국민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우정사업본부가 함께한다. 네이버는 4월 한 달간 전국 파리바게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를 5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포인트 1000원을 적립해준다. /김현정 기자